



통권 제15호

VIEW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29라운드

2011.10.23 SUN 15: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 15 ○ 발행일 : 2011년 10월 23일 ○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내 2층 · ☎ 062)-373-7733

POINT of VIEW

관전 포인트 광주FC vs 수원삼성



광주FC, 2011 마지막 홈경기 승리로 보답

23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구장서 수원과 승부
“빛고을 자존심 내걸고 최선다해 맞설것”

올 시즌 신생팀 돌풍을 예고하며 K리그에 화려하게 데뷔한 광주FC가 어느새 시즌을 마무리 한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2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3월 대구를 상대로 3:2 펠레스코어 승리를 거두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른 광주는 홈 마지막 경기인 만큼 팬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올 시즌 두번째 맞붙는 수원과 지난 3월 데뷔 첫 원정경기 상대로 만났다.

당시 광주 김동섭이 경기 시작 25초 만에 골 망을 흔들며 K리그 역대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거세게 몰아쳤지만 후반 수원의 마토에게 두골을 내주며 2:1로 석패했다.

특히 광주의 사령탑 최만희 감독과 수문장 박호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원에 몸담았기에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 속에 경기가 펼쳐졌지만 결과가 아쉬웠다.

지난 경기가 천정 날들이었다면 이번엔 안방 대결이다. 제 아무리 K리그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수원이라도 시즌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광주를 쉽게 상대할 수는 없다.

홈에서 강한 광주가 원정경기에서 당한 수모를 톡톡히 갚아주겠다며 버리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화끈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 경기 새로운 역사의 시작

광주는 역사적인 창단 첫 개막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는 경기장 개장 이후 역대 최대인 36,241명의 구름관중이 몰려들었다.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하지만 광주는 K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이후 8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쓰라린 기록을 남겼다. 그 중 전북에게는 6:1이라는 충격적인 점수 차로 패하기도 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광주는 죽을힘을 다해 그라운드를 누볐고, 디펜딩 챔피언 서울과 대전, 상주를 잇따라 격파하며 쾌조의 3연승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 황보관 감독과 대전 왕선재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특히 홈에서는 5승6무3패의 기록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시즌 막판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투는 부산과 울산, 전남을 상대로 잇따라 매운맛을 보이며 ‘고춧가루 부대’ 라는 별명도 얻었다. 한해 선수 농사도 성공했다. 광주의 캡틴 박기동과 프랜차이즈 스타 이승기가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고, 김동섭과 이용은 올림픽 대표로 차출됐다. 올 시즌 9승을 달성한 광주는 이미 역대 시민구단 데뷔 시즌 최다승(기존 7승)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가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K리그에 완벽하게 적응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뜨거운 상승세 광주vs지옥의 레이스 수원

시즌 막판 광주의 상승세가 무섭다. 최근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다. 이중 3승은 원정을 떠나 거둔 성적. 특히 6강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5-7 위를 상대로 광주의 매운맛을 톡톡히 보여줬다. 올 시즌 목표였던 한자리 수 순위권 진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8R 전남전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광주는 현재 11위(승점 35점)에 랭크돼 있다. 10위 성남과는 승점이 같고 9위 제주와는 2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수원 전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여기에 광주는 최근 6경기에서는 승점 11점을 챙기며 16 개 구단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승점을 쌓았다. 그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해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올 시즌 아시아 트레블(AFC 챔피언스리그, K리그, FA컵 한 시즌 동시 우승)에 도전했던 수원은 지난 15일 FA컵 결승전에서 성남에 패하며 분위기가 처져 있다. 특히 심판 판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면서 컨디션 조절에도 애를 먹고 있다. FA컵 우승이 실패한 수원은 현재 K리그와 ACL에 집중해야 하지만 광주와의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ACL 4강 알사드(카타르) 원정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서운 뒷심으로 홈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는 광주와 쉽지 않은 원정을 앞둔 수원의 경기가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독 최 만 회
1958.8.21/중앙대
수원 2군감독(05~10)



2011 GWANGJU F.C MEMBERS

광주FC 선수단 소개



수석코치 여 범 규
1962.6.24/연세대
울산현대고 감독



수비코치 김 정 수
1975.1.17/중앙대
용인시청 수석코치



공격코치 남 기 일
1974.8.17/경희대
현안시청 코치(09~10)



전력분석 홍 문 기
1966.7.2/광운대
가오이 고등학교 감독



트레이너 추 원 호
1968.12.24/영남대
대한트레이너협회 정회원



트레이너 박 성 필
1977.3.15/울지대
대한트레이너협회 정회원



주치의 이 준 영
1970.7.15/조선대 교수
조선대 경영외과학교실



1 박호진·GK
1976.10.22/190cm/65kg
연세대



2 정우인·DF
1988.2.1/185cm/76kg
경희대



3 박병주·DF
1985.3.24/185cm/79kg
단국대



4 이 용·DF
1989.1.21/187cm/79kg
고려대



5 임선영·MF
1988.3.21/185cm/77kg
수원대



6 김은선·MF
1988.3.30/181cm/77kg
대구대



7 이승기·MF
1988.6.2/177cm/67kg
울산대



8 안동혁·MF
1988.11.11/176cm/74kg
광운대



9 김동섭·FW
1989.3.29/187cm/78kg
장문고



10 박기동·FW
1988.11.1/181cm/83kg
송실대



11 조우진·MF
1987.7.7/177cm/70kg
포철광고



13 김호남·FW
1989.6.14/178cm/73kg
광주대



14 유동민·FW
1989.3.27/191cm/91kg
초당대



15 유종현·DF
1988.3.14/196cm/92kg
건국대



16 김성민1·FW
1987.5.11/185cm/75kg
호남대



17 박 현·MF
1988.9.24/175cm/65kg
인천대



18 김홍일·MF
1987.9.29/178cm/72kg
연세대



19 박희성·MF
1987.4.7/170cm/68kg
호남대



20 고은성·DF
1988.6.23/174cm/73kg
연국대



21 조상준·GK
1988.7.24/187cm/85kg
대구대



22 김수범·DF
1990.10.2/176cm/68kg
상지대



23 박성화·MF
1988.8.23/178cm/71kg
조선대



24 박요한·DF
1989.1.16/177cm/73kg
연세대



25 김성민3·FW
1985.4.19/175cm/70kg
고려대



26 노형석·DF
1988.11.17/186cm/80kg
동국대



27 임하람·DF
1990.11.18/186cm/87kg
연세대



28 윤광복·MF
1989.1.25/180cm/74kg
조선대



30 김성민2·FW
1990.9.27/181cm/73kg
전남과학대



31 허재원·MF
1984.7.1/188cm/81kg
광운대



32 박상현·MF
1987.2.11/175cm/68kg
고려대



34 안성남·DF
1984.4.17/172cm/68kg
중앙대



35 이재찬·MF
1987.7.26/178cm/69kg
조선대



36 셀린·FW
1989.6.11/190cm/86kg
브라질



37 주앙파울로·FW
1988.6.2/188cm/66kg
브라질



38 윤민호·MF
1987.1.21/177cm/73kg
강릉시청

○ 공격 포인트

| 선 수 명 | 골 | 도움 |
|--------|---|----|
| 김 동 섭 | 7 | 2 |
| 박 희 성 | | 1 |
| 김 성 민3 | 1 | |
| 김 수 범 | | 3 |
| 김 홍 일 | | 1 |
| 박 기 동 | 3 | 5 |
| 박 현 | | 2 |
| 김 은 선 | | 1 |
| 안 성 남 | 2 | |

| | | |
|-------|---|---|
| 유 동 민 | 2 | |
| 유 종 현 | 3 | |
| 이 승 기 | 8 | 2 |
| 조 우 진 | | 1 |
| 주앙파울로 | 8 | 1 |
| 허 재 원 | | 1 |
| 안 동 혁 | | 1 |
| 정 우 인 | 1 | |
| 임 선 영 | | 1 |

★백화점 · 패션 스토어 ★ 이·마트

광주신세계 TOWN

1995년 4월 10일 광주법인 설립!
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입니다.

- 2003년 광주·전남지역 중·하위권에도 중·대형소매점 상점화되었습니다.
- 광주은행을 주가해 운영으로 5도 광복합영이 존재에서 이루어집니다.
- 자곡상점 전국화대 동 일적 마케팅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신세계



“열정 가득한 광주FC를 응원해 주세요” 시민구단 데뷔시즌 최다승...국가대표 4명 배출 ‘K리그 1호 박사’ 각종 어록 남기며 성공 안착



INTERVIEW

인터뷰 광주FC 최만희 감독



지난해 12월 창단한 광주는 지난 10개월간 앞만 보며 달려왔다. K리그 막내인 광주 선수들의 평균나이는 23.7세. 경험 많은 선수가 적고 크게 내세울 스타도 없다. 객관적인 전력상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꿈도 꾸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광주가 최하위에 머무르지 않겠냐”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광주는 현재 9승 8무11패로 역대 시민구단 가운데 데뷔시즌 최다승(기존 7승)을 기록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광주의 아버지 최만희 감독을 만나본다.

최만희 감독은 23일 오후 3시 수원과의 홈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개막을 준비했던 게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팬들에게 올 시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이 됐다”며 “한 시즌동안 광주FC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어 “올 한해 광주FC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열정과 패기의 축구 뿐이었고, 우리는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면서도 “아직도 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만희 감독은 “많은 이들이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나는 오히려 기존 팀들이 신생팀에 발목 잡히는 걸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광주는 초보 선수들이지만 열정과 패기는 하나만큼은 어떤 팀보다 월등했고, 상대팀이 우리를 앞잡아 볼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최만희 감독의 말대로 광주는 개막전에서 대구를 3:2로 물리치고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어 디펜딩 챔피언 서울과 아시아 챔피언 성남, K리그 전통강호 전북, 제주 등을 꺾으며 신생팀의 매운맛을 톡톡히 보여줬다.

그는 고춧가루 부대장이라는 별명에 대해 “시즌 막판 6강 경쟁 팀들을 모두 다 무너트리며 활약한데 대해 붙여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든다”며 “선수들에게도 6강 경쟁이 치열할 때 두 배로 주목받을 수 있다. 정말 강하고 매운 전라도의 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만희 감독은 K-리그 1호 박사출신답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어록도 많이 남겼다. “사군자 그리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 “방귀(슈팅)가 맞으면 변(골)이 곧 나오겠쥬”, “김치는 전라도 고추로 담궈야 맛있다” 등이다.

그는 한 예로 “전라도 김치는 팔도에서 유명하다. 또 한국인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중요한 음식이기도 하다”며 “광주가 전라도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처럼 K리그를 이야기 할때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최만희 감독은 끝으로 “제가 할 일은 이곳에 광주FC가 좋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후배들이 좋은 팀을 목표로 노력하고 자라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진짜 좋은 프로축구팀을 만들겠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프로필

이 름 : 최만희

생년월일 : 1958년 08월 21일

출신교 :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중앙대학교

경력

- 2000.6~2002.2 - 전북 현대 모터스 감독
- 2002.11~2004 - 부산 아이kons 수석코치
- 2004~2005 - 부산 아이kons 부단장
- 2005.1~2010.6 - 수원 삼성 블루윙즈 2군 감독
- 2010.10~ - 현) 광주FC 감독

NEWS 구단 뉴스

“광주FC 마지막 홈경기 시민과 함께” 야외공연·시음회 등 다채...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은 ‘덤’

“광주FC 마지막 홈경기 보고 푸짐한 경품도 받으세요.”

광주FC가 K리그 2011 마지막 홈경기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광주FC는 오는 2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수원 삼성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행사와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먼저 장외행사로 오후 1시부터 월드컵경기장 남문 매표소 앞(롯데마트 광장)에서 광주 프리스타일 힙합 댄스팀인 빅사이즈의 비보이 공연, 노이칸디아모의 남성 4중창, 바이올린과 트럼펫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클래식 공연 등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또 저소득층 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행사를 열고 숯사탕, 팝콘, 사랑의 파전 등도 판매한다.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자발적으로 모금함에 성금하면 된다. OB 골든라거, 순희 등 시음회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의 IT 모바일 체험 등 각종 행사와 선착순 1만명에게 노란 응원막대 풍선도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 30분 전 부터는 광주FC 공식 치어리더인 블랙캣과 비보이 공연이월드컵경기장 내에서 펼쳐지며, 삼성전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모은 쌀(2 이상) 전달식도 예정돼 있다.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여대생들이 양팀 선수들을 에스코트하는 것도 볼거리다. 푸짐한 경품도 눈길을 끈다. 광주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NEW 프라이드 승용차를 비롯해 스마트 TV, 스탠드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2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광주신세계 백화점 50만원 상품권 2매를 증정한다. 한편 광주FC는 현재 9승8무11패로 역대 시민구단 데뷔 시즌 최다승 기록을 달성했으며, 시즌 막판 고춧가루 부대라는 별칭을 얻으며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수원전에서 승리하면 올 시즌 목표였던 한자리 수 순위(최대 9위)로 올라설 수 있다

GWANGJU F.C INFORMATION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